

【나의 책 나의 학문】

## 고노 로쿠로(河野六郎) 선생과 나

신창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명예교수

내가 도쿄 교육대학 대학원의 인문과학 문학연구과 박사과정에 입학한 것이 1969년 4월이니 만학(晩學)도 이만저만한 만학이 아니었다. 박사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1년 반을 연구생으로 적을 두었었으니 도쿄 교육대학과의 인연은 그만큼 더 일찍이라 하더라도 국내서 대학, 대학원을 마치고 병역으로, 교직으로 십년 가까이를 사회생활을 하다가 학업을 시작했던 것이다. 도쿄에서 언어학과가 있는 대학은 국립대학인 도쿄 대학과 도쿄 교육대학의 둘인데, 도쿄 교육대에 들어가 공부하게 되었다. 강의는 석사(일본에서는 修士課程)과정생, 박사과정생이 함께 들었는데 석사과정 학생들은 대학을 마치고 바로 들어온 사람들이니 나에게는 어린애들 같이 보였다.

그런데 나로서는 철도 안 들었던 그 나이의 일본학생들이 가당치 않았다. 한번은 이들과 잡담을 하는데 한 학생이 텔레비전의 드라마에 대해서 얘기 하니 옆의 한 학생이 “너 텔레비전 보냐?”고 말을 던지는 것이었다. 공부하기 바쁜데 텔레비전 볼 시간이 있느냐는 것이다. 일본인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을 보고, 한국학생은 60 ~ 70%의 힘을 가동(稼動)하고 있다면 그들은 몸을 상할 120%의 힘을 쏟고 있다고 느꼈었다. 나이는 많고 박사과정생이란 나 하나이고(박사과정생이 몇 있는 듯하였으나 다 자기 전공언어의

나라 대학에 유학을 가 있었다.) 한국의 명예도 짊어져 있으니 나도 이들 못지않게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언어학과의 분위기이다 보니 국어학에 간헐(?) 나에게는 붓도랑 속에 있다가 큰 강으로 놓여난 것 같았다. 그때는 한국에서는 아직 그 존재조차 모르던 복사기란 이기(利器)로 도서관을 뒤져 참고문헌도 마음대로 복사했고, 당시만 해도 은성(殷盛)하던 간다(神田), 진보초(神保町) 서점가를 탐나는 대로 돌며 언어학 관계 고서, 신간서들을 사 모았다. 근래 이곳을 가봤더니 일본도 이제 책의 시대, 학문의 시대가 한물갔는지 많은 고서 책방이 다른 직종의 가게로 바뀌어 있었다. 그리고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결코 얻어 볼 수 없었던 북한의 언어학 책, 잡지들을 풍부하게 볼 수 있었고 복사할 수 있었다. 같이 공부하던 간노 히로오미(菅野裕臣)씨가 “小倉進平著, 河野六郎 補注: 增訂 補注 朝鮮語學史”를 이룰 때 북한에서 나온 어학관계 책, 잡지의 수집을 그가 주로 맡아 해서 그 책들을 많이 간직하고 있었는데, 한번은 북한의 “조선어문, 조선어학”을 혼자 들기 어려울만한 두 보따리를 일부러 가져와서 빌려 주어서 며칠을 걸려 필요한 부분들을 복사하고 돌려보낸 일이 있었다. 이 밖에도 도서관, 북한 책 다루는 책방 등에서 북한 언어학 책을 볼 수 있었다. 복사기는 대학원생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었으나 다만 학무과의 담당자에게 가서 복사실 열쇠를 빌려야 했다. 그런데 내가 하도 자주 가니 그 담당자도 얼굴을 찡그렸었다. 당시의 복사지는 오늘날 같은 흰 종이가 아니라 회색으로 코팅된 종이였다. 이것은 오래되면 글씨가 흐려진다고 말을 했지만 삼십오륙 년이 지난 지금 보아도 탈이 없다.

이런 득(得)이야 유학을 한다면 누구나 얻을 득(得)이지만 도쿄 교육대 유학에서의 다시 얻지 못할 행복(享福)은 내가 고노 로쿠로(河野六郎) 선생 아래서 공부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다. 도쿄 교육대에 입학 당시 나는 고노 로쿠로(河野六郎) 선생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몰랐었다. 그러니 사실 당시의 나는 아무 것도 모르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노(河野) 선생은 광복전 경성제대 조선어과 조교수를 하신 분이요 선생의 그 유명한

“朝鮮方言學試攷(1945년 4월 간행)” (이 책은 내 유학 당시에는 ‘まぼろし’(幻想)의 책이었고, 일본 내에는 네 권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1945년 광복이 되자 고노 선생님이 일본으로 맨 몸으로 귀국하기 전 이 책 인쇄소가 보니 막 제본이 끝난 것이 쌓여 있어 두 권을 가져 나왔다 한다. 이 인쇄소의 책이 서울 시중에 나돌아 한국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는 책이었다.)는 나의 나이 또래의 국어학을 공부한다는 사람이면 읽어 보았거나 적어도 그 이름쯤은 알고 있었던 것이다. 나의 당시 국어학 학식이란 피난살이 대학에서 배운 것과 중·고교 전임교사로 있으면서 가뭇에 콩 나듯이 강의를 들으러 가는 대학원 과정에서 배운 것 정도였으니 정말 혹 불면 다 날아가 버릴 알량한 것이었다. 이런 형편이니 고노 선생님을 몰라 봤었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언어학과이다 보니 같이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는 베트남어, 중국어, 독일어, 히브리어, 그밖에 여러 언어의 전공자가 있었지만 조선어 전공자는 나를 포함해 간노 히로오미(菅野裕臣, 박사과정), 시부 쇼헤이(志部昭平, 修士課程), 쓰지 세이지(辻星兒, 修士課程) 등이 있었다. 이렇게 학생들이 많을 수 있었던 것은 학과 주임이 고노 로쿠로(河野六郎) 선생이었기 때문이었다. 고노 선생은 대학 시절 중국 음운학을 전공해 도쿄 교육대 중국어학과 주임으로 계시다가 언어학과가 생기면서 이 과 주임으로 옮겨오신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고노 선생의 관심은 경성제대 시절의 조선어학 분야였을 것이다. 위에 든 조선어학 전공생들 중 나를 빼고는 애초 고노 선생의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도쿄 교육대 언어학과에 들어온 사람들이었다. 간노 씨, 시부 씨(쓰지 씨는 일년쯤 뒤에 들어온 듯하다)는 나에게 친절히 대해 주고 여러 가지 가르쳐 줬다. 아마 처음으로 간노 씨, 시부 씨와 인사한 때인 것 같은데, 다방에서 차를 마시면서 고노 선생이 훌륭한 분이란 것을 힘주어 말해 주었다. 간노 씨는 반 년 뒤 서울대학교로 유학을 갔고, 쓰지 씨는 어려서 그런지 별로 함께 어울리지 않았지만 시부 씨와는 삼년 동안 꼬박 고노 선생의 강의를 들을 수 있었다. 시간이 갈수록 고노 선생의 위대한 모습이 더 뚜렷해져 갔지만 지금 70도 훨씬 넘은 이 나이에

도 고노 선생의 학식의 넓이와 깊이가 얼마나인지 헤아릴 길이 없는 것 같다.

19세기 서구 학계에서는 언어학 분야에서 석학이 많았지만, 서구의 근대 학술을 그같이 단시일에 따라잡은 일본에서도 그런 석학들이 배출(輩出)되었었다. 고노 선생은 메이지(明治), 다이쇼(大正), 쇼와(昭和) 초엽, 찬란한 학자의 시대 끝 무렵을 장식한 석학이었던 것이다. 여기 석학이란 한 평생 별로 길지 않은 시간이 주어진 인간의 몸으로서 어떻게 저같이 넓고 깊은 학식의 경지에 이를 수 있을까 불가사의한 생각이 들 그런 학자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를테면 어학은 학자의 소양(素養)일 뿐 학식은 아니지만, 고노 선생은 영, 독, 불, 노어, 한문, 중국어, 한국어 그리고 희랍어, 라틴어, 산스크리트 등등 열을 더 넘는 외국어를 읽으셨고(학자들의 어학적 소양은 전공서를 읽는 데에 주로 쓰였다.), 그것도 아주 다 마스터한 경지였다. 지난날 석학들의 경지가 어떠하였던가가 짐작된다.

고노 선생에서 들은 강의 몇 가지를 회상해 보겠다. 언어학강독인가에서 고노 선생은 텍스트로 A. Martinet의 “A Functional View of Language”를 택하셨다. 그 책의 전부는 아니지만 제2장의 ‘Towards a functional syntax’만 읽었고, 또 여기의 이론을 응용해서 박사논문으로 쓴 Bernard Saint-Jacques의 Analyse structurale de la syntaxe du japonais moderne, 1966.의 내용을 선생이 요약해서 소개해 주셨다. 이 강의에서 마르티네의 문법이론을 보면서, 나는 한국어문법을 기능주의 언어학 이론으로 읽어보려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기능주의 언어학 이론을 파고 들지는 못했다.

당시 한참 Chomsky의 변형생성문법으로 세상이 떠들썩하던 때에 마르티네의 책을 읽기로 한 데서 고노 선생이 제자들을 어떻게 이끌려 했는가 하는 뜻을 엿볼 수 있는 것 같다. 고노 선생은 변형문법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다. 그보다도 이미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계셨던 듯하다. 그보다는 기능주의 문법이론이 학생들에게 더 유용하리라 생각하셨을 것이다. 고노 선생은 미국언어학에서 휘트니(Whitney)와 사피어(Sapir) 정도를 대가

(大家)로 치고 나머지는 별로 관심을 안 가지신 듯하다. 한편 프라그 학파의 언어이론에는 관심이 있으신 듯, 내가 한번은 빌렘(Vilém Mathesius)의 “A functional analysis of present day English on general linguistic basis. 1975, Mouton”을 샀다고 보여 드리니까 ‘아, 그 책은 나도 샀지.’ 하면서 같은 책을 내보이셨다. 하여튼 고노 선생을 따라 변형생성문법을 좇아다니는 도로(徒勞)의 시간 낭비를 면할 수 있었던 것만 해도 고노 선생에서 얻은 바는 크다.

한자음에 관한 강의도 있었다. 이 강의 내용은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것도 알 수 없고 그저 출석만 하고 있었지만 꽤 중요한 강의였던 듯, 강신항(姜信洸) 교수가 하버드 엔칭 장학금을 받아 미국에 있다가 이 강의를 들으려고 기간의 반은 동경에서 지내며 나와 자리를 나란히 해서 이 강의를 들었었다. 또 고노 선생이 전에 계시던 한문학과에서도 이 강의에 여럿 참석했는데 그 중에는 고마츠 히데오(小松英雄) 교수도 있었다. 이 분은 뒤에 쓰쿠바(筑波) 대학으로 가서 내가 학위논문 낼 때 영어학의 야스이 미노루(安井稔) 선생과 함께 심사위원을 한 분이다. 강의는 칠판에 한자(漢字) 한 글자를 써 놓고 베트남어,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의 자음 또는 운서, 그리고 아마 이미 여느 학생들이 재구한 자음들을 각 전공학생들이 칠판에 나가 적는 모양으로 진행되었는데, 아마 한자음 재구를 위한 내용이었던 듯하다. 앞서서도 말한 듯이 고노 선생은 본래 중국 음운학을 전공하신 듯한데 이 방면에서도 일류학자임은 아는 바와 같다. 뒤에 한국 한자음을 연구하여 “朝鮮漢字音の研究”를 학위논문으로 이루기도 하셨다. 그밖에 “동국정운”이나 훈민정음에 관한 연구도 오늘날까지의 국내외를 아울러 이 방면 술한 연구들 가운데서도 출중(出衆)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한번은 “朝鮮漢字音の研究”를 한 차례 읽고 고노 선생께 한번 읽어봤다고 하였더니 ‘알겠느냐’ 하시기에 ‘모르겠습니다’고 대답한 일도 있었다. 고노 선생의 글이니 한번 읽어 본 것이지 전혀 그 의미를 알 수 없었다.

고노 선생은 한자 음운학뿐 아니라 한자의 문자론에서도 값진 연구를 남기셨다. 문자론 얘기가 나온 김에 고노 선생에서 들은 문자론 강의에 대해

서 좀 말해 보자. 이 강의에서 이집트 성각문자(聖刻文字), 메소포타미아의 설형문자(楔形文字)를 읽는 법도 설명을 들었었다. 간노 히로오미(菅野裕臣) 씨에 의하면 고노 선생은 이미 학생 시대에 설형문자니, 성각문자를 공부하셨고, 이집트어 전공의 학자와 고대 이집트어의 해독을 공동으로 하시기도 하였다 한다. 이 문자론 강의를 통해서 얻은 것은 무엇보다도 문자의 본질에 대한 인식, 곧 문자의 기능이 표어(表語)에 있다는 점, 그리고 문자의 언어적 기능에 대한 점이라 할 것이다. 문자학이 그 문자로 표기하는 언어와 유리(遊離)되어 연구되는 일이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국어 표기법이나 국어 문장론 같은 실용적인 문제에서조차 문자로 표기하는 언어(문장어)에는 눈을 주지 않고 문자만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을 볼 때 그런 학자들에게 고노 선생의 문자론을 달여 한 모금만 마시게 했어도 그들이 그렇게 비뚤어 나가는 일은 없었을 것인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고노 선생은 학식뿐 아니라 인격이나 스승 됨에서도 훌륭한 분이였다. 고매(高邁)하다든가 하는 그런 딱딱한 인격자를 이름이 아니라 지금에 있어서도 선생을 생각하면 경모(敬慕)의 정이 절로 떠오르는 그런 인간미 넘치는 분이였다. 고노 선생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선생을 생각하는 정을 나는 가끔 공자의 제자들이 공자를 사모함이 이렇지 않았던가 하고 비껴 생각한다. 내가 한 십년 전에 도쿄 외대에 일년간 객원교수로 가 있을 때 간노 교수가 주재하여 한 달에 한 번씩 조선어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사람이 발표하고 끝나면 음식점으로 옮겨 한 잔 하는 모임이 있었다. 그 자리에서 젊은 학자들은 나보고 ‘고노 선생에서 배웠습니까’하고 선망(羨望)의 눈으로 바라보며 고노 선생 문하생이라 하여 나의 가치까지 높여 대접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제 내 인생도 마무리에 가까운 때에 이르러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의 보람은 고노 선생 같은 훌륭한 분을 만났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 이런 복은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닐 것이다.

고노 선생이 쓰신 글은 다행히도 “河野六郎著作集 1,2,3, 平凡社, 1979 ~ 1980”로 집대성되었다.(1권: 조선어학논문집, p.597, 2권: 중국음운학논문

집, p.560, 附別冊 p.322, 3권: 문자론, 잡찬(雜纂), p.505. 이밖에도 “文字論, 1994, 三省堂, p.161”, 역서인 “言語學と哲學(E. Gilson: Linguistique et Philosophie, 1969’의 역서), 岩波書店, 1974, p.349.” 그밖에도 총서(叢書) 등을 포함하여 많은 저술(著述)이 있다. 그러나 특기해야 될 것은 가메이 다카시(龜井孝), 센노 에이이치(千野榮一)와 공동으로 편저한 三省堂에서 낸 “言語學大辭典” 6권이다.(1권 p.1801, 1988, 2권 p.1811, 1989, 3권 p.1200, 1992, 4권 p.1221, 1992, 5권 p.1056, 1993, 術語篇, p.1795, 1996)

이 저작이 언제 기획되고 출발되었는지는 모르나 1권이 나온 1988년은 고노 선생이 76세 때이고 술어편(術語篇)이 나온 1996년은 선생이 84세 때이다. 다른 권에서의 고노 선생의 집필도 많겠지만 술어편을 뒤져 보면 고노 선생이 집필하셨을 항목이 많이 눈에 띈다. 이를 보면 선생의 노년 때 정력(精力)이 대단하지 않은가. 더욱이 이 대사전(大辭典) 간행 뒤에도 많은 활동이 있었던 것이다. 이렇듯 선생은 직접 몸으로써 제자들에게 귀중한 가르침을 주셨다. 만학(晩學)일 뿐 아니라 만성(晩成)인 나는 앞으로 5 ~ 6년은 더 연구를 해야 뜻한 바를 이룰 수 있을 듯한데 고노 선생을 생각하면 용기와 자신이 절로 생기는 것이다.

<나의 책, 나의 학문>이 글의 표제(標題)인데 고노 선생 얘기를 중심으로 쓰게 되었다. 이것은 나에게 대해서는 별 쓸 것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 가지 품은 생각이 있어서이기도 하다. 한국어의 근대적인 학문은 사실이 지 일제시대, 경성제대 조선어과에서 기초가 놓아졌다 할 수 있다. 오쿠라 신페이(小倉進平), 가나자와 쇼자부로(金澤庄三郎), 고노 로쿠로(河野六郎), 그리고 마에마 교사쿠(前間恭作) 같은 일본 국내에서도 일류로 자리매김 될 학자들이 한국어학을 가르치고, 연구하였다. 광복 후 그 흐름이 대개 서울대 국문학과에 의해서 이어졌지만, 한국어학은 광복 전에 이미 높은 단계에 이르고 있었던 것이다. 학문의 마당에서 거짓이나 편견이나 왜곡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요사이 우리는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동북공정(東北工程)’에 의한 고구려사에 대한 부당한 거짓, 왜곡 등을 바로 눈앞에서 목도(目睹)하고 있지 않은가.

학문은 학문으로서의 격이 있어야 한다. 광복 후 옳은 학문적 훈련을 받지 못하고 독학으로 국어를 공부한 사람들이 학자 반열(班列)에 들어오고, 우리 스스로의 노력에 의한 언어학의 근대화를 이루지 못하는 등 많은 혼란 가운데서 국어학의 학문적 전통, 학풍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방황했었다. 그러나 우리도 이제는 진리 탐구라는 학문의 가치를 결정하는 조건 이외의 것은 가셔내고, 국어학의 기초를 닦은 학자에 고노 로쿠로(河野六郎) 같은 훌륭한 석학도 있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성숙함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